



## 조경수목산책 32

- 무궁화 -



임 경 빈  
농학박사



### 무궁화의 교목성(喬木性)

나무는 종류에 따라 높게 자라는 나무와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 개나리는 아무리 자라도 키큰나무 굵은 나무로는 되

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라는 것은 항상 있는 법이다. 서울에 개나리의 노거목이 있어서 한때 신문지상에 크게 보도된 적도 있다. 나는 이 큰 개나리를 한번 보고자 했으나 아직 찾아가지를 못하고 있다. 개나리 처럼 키낮은 나무를 우리는 관목(灌木)이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느티나무나 물푸레나무 밤나무 처럼 높게 자라는 나무를 교목(喬木)으로 말한다. 관목이

나 교목이란 말은 몇천년전에 나온 중국시집 시경(詩經)에 보인다. 기관기례(其灌其禮)란 대목이 있는데 관(灌)은 나무가 키낮게 더부룩하게 자라는 모습을 뜻하고 레(柵)도 키낮은 나무가 모여서 자라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여기에서 관목이란 말이 생겨 낮는데 이러한 어휘는 몇천년을 두고 한문자 문화권의 사람들의 용어가 되어왔다. 더러 교(喬) 보다는 고



▲무궁화가로수. 1999. 9. 15



▲예안향교의 애기 무궁화 전경. 1992. 9.

◀애기무궁화의 가지로 기이한 꼬임. 1992. 9.

▶암술이 튀어나온 꽃봉우리. 1996. 8. 22



(高)가 더 쉽지 않나해서 고목이란 용어도 나타나고 있는데 어지간하면 조상들이 쓰고왔던 말을 그대로 답습하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면 무궁화는 관목인가 교목인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식물학 책에도 무궁화는 관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목형의 무궁화가 있었으면 한다. 이러한 기호를 생각해서 수원에 있는 임목육종연구소에서는 교목형의 무궁화를 만들기 위해서 수형조절 시험을 했고 상당한 성과를 얻어 지금은 교목형 무궁화로 가로수를 조성했다. 지금 꽃이 피고 있고 이웃에 서있는 소나무등 침엽수의 푸름을 배경으로 해

서 꽃의 화사함이 더 돋보이고 있다. 이태리, 그리스 등 유럽의 몇나라에 있어서는 이러한 교목형 무궁화를 만들어 변화한 도시가로수로 심고 있다. 특유한 정취를 풍기는 줄나무이다. 전북 남원군 산동면 대상리 요동마을에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교목형의 무궁화나무가 있다하기에 1994년 봄날 그곳을 찾아 갔었다. 어느 농가의 뜰 돌담에 빳빳 붙어서 있었는데 나무높이 6m 흉고 직경이 22cm로 측정되었다. 무궁화로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거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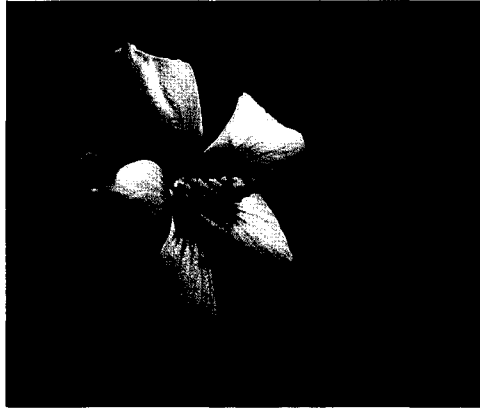
돌담 때문에 이 나무는 사람들의 접근에서 멀리 할 수 있었고 가까이에 소를 매어두는

곳이 있어서 자연 땅은 비옥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궁화의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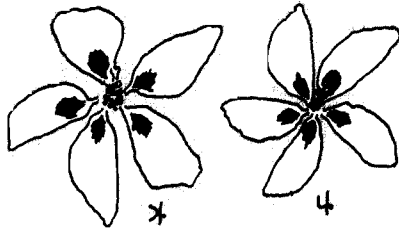
이 무궁화와 거의 같은 크기의 나무를 나는 경기도 백령도에서 볼 수 있었다. 1998년 7월 상순 나는 98년도 제2차 비무장지대 인접지역 생태계 조사단의 한사람으로 백령도 일대를 답사할 기회를 가져왔다. 그때 나는 우리 나라에서 두번째로 오래되었다는 중화리(中和里)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다지 높지 않은 언덕위에 아담하게 서있는 교회였다. 만들어진 돌계단을 따라 교회건물로 접근해야 하는데 초입에 두 그루의 팽나무가 서 있었다.



▲애기무궁화의 꽃. 1992. 9



◀화분에서 핀 애기무궁화 꽃. 1997. 7. 10



꽃잎의 회전, 좌권(가)과 우권(나), 애기무궁화



암술이 튀어나온 꽃봉우리, 애기무궁화

이 계단을 오르다 보면 무궁화 나무를 만나게 된다. 두 그루의 무궁화가 접근해서 서있는 상태인데 각각의 줄기의 가슴높이 직경이 20cm 그리고 22cm로 추정되었다.

이만한 굵기라면 앞에 말한 남원의 그것과 대등소이다. 수고도 남원 무궁화에 뒤 떨어지지 않는 상태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어느쪽이 더 크냐하는 건데 이것은 때를 같이 하여 특정비교해야 될 문제이다. 남원무궁화의 측정은 4년정도 전의 일이다. 그동안 더 자랐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남원의 것이 일단 앞서서 크기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 두 나무는 모두 소교목(小喬木)형

의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큰 무궁화가 더 키워 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 7월 21일. 밖에는 무궁화가 나무마다 만발하고 있다 나무에 따라 칠눈은 나무도 있다. 쪼이는 햇볕아래 햇볕을 반사시키는 화려의 생리가 대단하다. 그화려도 몇시간 뒤면 종말이 올것이 아닌가 인간보다도 못한 생리로 보는 시한수가 있다.

人壽期滿百 인수기만백  
花開唯一春 화개유일춘  
其間風雨至 기간풍우지  
且夕旋爲塵 단석선위진  
若使花解愁 약사화해수  
穗於看花人 수어간화인

사람의 수명은 백살을 바라보는데

꽃은 봄한철의 일이 아닌가 그간 바람불고 비오고 하면 아침의 꽃도 저녁에는 티끌로 된다.

만약 꽃이 수심을 아는 것이 라면

바라보는 사람보다 그 수심은 더할것이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을 되풀이 한 시이다. 인간 백살도 천지의 운행으로 본다면 눈 깜빡 할 사이이다. 그 찰라에 서서 우리는 노래해 보는 것이다.

무궁화에 무궁한 영광이 있어라. **조경수**